



3면

‘빨갛 폭락’... 비 갈아엎은 정읍지역 농민들

# 전주매일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음 9월 4일) 제31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8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전북'에 김관영 도지사와 강석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상자 4명 최종 선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은 28일 제27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모범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혁신대상에 박상협 (주)우리비앤비 대표이사 △경제대상에 박종완 계성건설(주) 대표이사 △문화대상에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 △나눔대상에 레티김홍씨 등 4명이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25일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제42회 전북도민의날 행사 때 시상할 예정이며,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혁신 - 박상협 경제 - 박종완 문화 - 남해경 나눔 - 레티김홍

## 전북도 - 산업은행, 지역경제 부흥 '맞손'

전북도와 산업은행이 손을 잡고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KDB산업은행은 28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강석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지역라운드) in 전북'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테라리스크(대표 김태영), 에너지비즈니스솔루션(대표 신상기), 엔터코바이옴(대표 서재구), 시지트로닉스(대표 심규환), AD수신(대표 이두현) 5개사의 대표자가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등 투자지역의 엑셀러레이터(AE), 벤처캐피탈(VC) 관계자 50여명에게 각 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투자당위성 등에 대해 직접 소개했다.

또한, 전북 산업에서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2차전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소재 '그린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 'KDB산은 넥스트라운드 in 전북' 개최

지역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상호간 협약 체결  
스타트업계 성장 400억 규모 펀드 내년 상반기 조성

전북도와 KDB산업은행과의 인연은 지난 2019년 넥스트라운드 in 전북이 개최된 것을 계기로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행사 때와는 달리 양측 기관장이 처음으로 직접 참여한 스타트업 활성화 지역 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 기관장은 이 자리에서 낙후된 전북 경제 부흥 및 도약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도내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의미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KDB산업은행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 자원을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양 기관의 대표자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KDB가 운영하는 투자프로그램에 전라북도 기업을 추천하고, 은행의 자금 지원이 요구되는 신산업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와 대출 등 금융 지원과 투자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전북도는 투자환경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도내 스타트업계에 미중립을 제공하기 위해 KDB산업은행, 도내 상장사와 공동 출

자해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이 실시한 조사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58.2%가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투자심리 악화, 내수시장 부진이 52.7%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조사됐고, 지난 해보다 투자가 늘어난 곳이 16%에 불과한 형편이다.

한편 전북도 KDB, 도내 상장사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의 [가칭]민·관 협력형 혁신창업·벤처펀드'를 내년 상반기 내 약 4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도내 스타트업계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같은 날 강석훈 회장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드넓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빼곡히 채우게 될 공장 신설 필요성을 피력하고, 새만금 근로자들의 보금자리로서 자족기능을 갖출게 될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새만금을 경제중심지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열망을 공유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내 최대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 넥스트라운드 무대에서는 것만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업으로 평가한다"며 "건설한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무대와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조선 지방관 살림집, 국가문화재 되나?

김제 내아, 보물 지정 예고



김제시는 조선시대 지방관의 가족이 생활하는 살림집에 해당하는 김제 내아가 이달 29일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음을 알렸다.

내아는 지방관의 집무공간을 통칭(棟軒), 지방관의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인 내아를 西軒(서헌)이라 불렀을 정도로 지방관아 구성 건물 중 주요 건물 중 하나이나 일제강점기 이후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관아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그간 내아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김제 내아의 경우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읍사무소의 부속건물과 가정집 등으로 활용되며 그 원형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김제내아가 이어져 왔

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에 '목부재 연륜연대 측정'을 진행했으며, 측정결과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740년대에 창건 또는 중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간 수많은 지자체가 관아복원사업을 추진하며 내아의 원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김제내아'를 '내아'의 표본으로 삼아왔으나 이번 보물지정을 계기로 조선시대 내아건물의 표준으로서 공신력을 지니게 됐다.

또한 국내에서 '내아'가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최초이자 유일한 경우로서 전통건축학도와 역사학도들에게 학술적 가치가 커 필수 답사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김제=곽노태기자

## 민선8기 전주시 첫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

시, 시장 직속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설치 등 현안업무 추진 '속도' 자치법규 입법상황 보고·관련 규칙 개정 등 거쳐 내달 중 시행

전주의 대변역을 이룰 시장 직속의 전담기구인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설치 등 전주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전주시는 28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선8기 전주시 첫 조직개편은 향후 자치법규 입법상황 보고·관련 규칙·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내용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을 통한 전주 대변역 위해 시장 직속의 전담기구인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설치된다는 점이다

당초 시는 시장 직속 전담기구의 명칭을 '미래성장지원실'로 제출했으나, '부서 업무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돼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성장산업 확장과 전주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로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신성장산업과 민생경제와 신생 등 경제산업국 기능이 강화된다.

여기에 △글로벌 산업·문화·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담당관 △청년 일자리, 교육 및 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과 △국가예산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등 협조체계 구축 위한 서울세종사업소가

각각 신설된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민원 응대 및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청소·공원·복지 민원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정책적 직관성 확보 및 중앙부처·전북도와 연계성 고려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한 것도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에 담겼다.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 확정으로 기존 5국 1단 2구 2직속 8사업소 88과·담당관이 1실 5국 2구 2직속 11사업소 88과·담당관으로 개편돼 과 단위 기구 수가 1개 증가하게 됐다. 또, 업무량 증가 및 신규사무 추진에 따라 총 정원도 2330명으로 늘었다.

황관주 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8기 시민과의 주요 약속을 구체화해 나가고 전주시를 새롭게 할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와 담례품을 드립니다.

기부한도액  
인당 연간 500만 원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담례품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까지

기부 방법 (2023.1.1~)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기부 → 지역특산물 구입 → 담례품 제공 → 지역특산물 공급

kakao 채널 Ch 완주 고향사랑

완주 고향사랑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 T/F팀 063-290-2391 ~ 2392